

함께 걷는 부산 길 ① 생기 넘치는 새벽 시장길

# 부산의 아침 깨우는 역동과 날 것들의 세상



부산항이 우리나라 물류의 심장으로 역동적인 부산 모습을 상징하는 곳이라면, 부산공동어시장~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부역이자 굴곡에도 쓰러지지 않는 다부진 삶을 대표하는 곳이다. 한 해의 문을 여는 1월, 부산의 아침을 깨우는 시장길을 걸으며 오뚝이 같은 삶의 의지를 다져본다.

## 부산 시어(市魚), 싱싱한 제철 고등어 가득한 부산공동어시장

새벽 5시30분. 오늘의 첫 코스인 부산공동어시장으로 향한다.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량의 30%, 고등어 위판량의 80% 이상이 거래되는 곳이다. 느린 겨울 해가 떠오르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부산공동어시장 앞은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. 나가는 이들은 어젯밤 들은 배에서 밤새 하역과 분류를 마친 사람들이고, 들어오는 이들은 경매가 끝난 후 수산물을 손질할 사람들이다.

“오늘 와서 다행이지. 다음번 배가 들어오려면 일주일만 기다려야 해요.”

안내를 맡은 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이춘수 씨가 말했다. 달이 밝아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월명기(음력 14~19일)라는 것이다. 월명기를 제치하더라도 최근에는 대형선망 업계의 부진으로 경매가 없는 날이 많다고 한다. 하역부터 중간도매, 작업과 운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허탕을 치게 된다는 뜻이다. 고등어·대구·전갱이 등 다양한 어종이 경매에 나온 이날은 특별히 운이 좋은 날인 셈이다.

경매 시작 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리 물건을 둘러보거나 이룸도 정다운 ‘구내 찻집’에서 산 커피를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. 이곳의 구내식당도 유명한데 김영삼·노무현·노태우 전 대통령이 들렀던 ‘맛집’ 이란다. 싱싱한 고등어 정식을 먹으러 일반 시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한다.

이윽고 ‘땡땡땡’ 경매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자를 눌러 쓴 경매인들을 따라 인파가 움직였다.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됐지만 경매 현장은 투수와 포수 간의 사인만큼 현란하다. 녀을 잃고 보다 보면 순식간에

부산공동어시장 새벽 경매 현장. 야구의 포수와 투수처럼 다양한 수신호가 오간다.